

한강의 수달

▶ 한강에 돌아온 수달, 그 흔적을 찾아 떠나보아요!

()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1. 어떤 동물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예상한 이유를 적어 봅시다.

누구일까요?	예상한 이유
수달	발자국을 보고 알았어요. / 배설물을 보았어요.

2. 수달의 흔적을 알아보고 흔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봅시다.

털 고르기	수달은 먹이를 배부르게 먹고 나면 모래톱에서 (<u>털 고르기</u>)를 합니다. 모래톱은 수달에게 (<u>번식</u>)과 (<u>보금자리</u>)의 역할을 합니다.
물놀이	수달은 수중 생활에 적합하도록 몸이 (<u>유선형</u>)이며, 앞뒤 5개의 발가락 사이에 (<u>물갈퀴</u>)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역표시	수달은 주로 (<u>물가</u>)의 나무뿌리 혹은 계곡 바위틈의 은폐된 공간을 자신의 보금자리로 선택하여 이용하곤 합니다. 보금자리 입구는 쉽게 대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거나, 물가로부터 약 1~2m의 거리에 위치하고 홍수 시에도 물에 잠기지 않으며 (<u>배설물</u>)이 관찰됩니다.
모성애	수달은 주로 혼자서 생활을 하는데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것은 (<u>어미</u>)와 새끼들입니다.
수달을 위협하는 것들	강가에서 수달을 위협하는 것들은 (<u>쓰레기</u>)와 어민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쳐 놓은 (<u>어망, 그물, 통발</u>) 속에 들어가 나오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아래 내용을 보고 수달이 한강에서 사라진 이유를 근거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수달과 함께 살아가려면 수달을 위협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위협이 되는 요인 중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각종 질병과 인간 활동의 증가입니다. 인간 활동은 사냥과 밀렵뿐 아니라 하천의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서식지가 줄어들고 수생태계가 오염되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생활하수, 공장 폐수, 농약, 축산 및 관광 단지 등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면 중금속 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하천변이 콘크리트로 채워지면서 수달 서식지 훼손에 더할 수 없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이나 어망 등의 도구에 따른 수달 폐사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대구광역시 금호강을 살리기 위해 방사한 수달 한 개체가 버려진 어망에 걸려 죽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동 중에 발생하는 도로 교통사고도 야생동물에게 큰 위협 요인입니다. 수달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천과 하천 사이를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수달이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 요인들로 일본에서는 1993년 이후 수달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난날 우리나라 수달은 전국에 걸쳐 살았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하천 개발에 따른 서식지 파괴와 모피를 얻기 위한 무분별한 포획으로 개체 수가 급감했습니다.

[출처] 국립생태원 도서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멸종 위기 야생동물 1편 05. 물속 생태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수달

● 나의 생각

● 그렇게 생각한 이유